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달궀진 오븐 속 갈던 여름의 열기가 사라지니, 입맛을 찾고 숙면을 취한다. 아침마다 한결 쾌적한 공기 속에서 기지개를 켜면 가슴에 밝은 기분과 낙관적인 희망이 깃든다. 교하의 가로수인 뽕나무 잎은 벌써 반쯤 단풍이 들었다. 요즘 교하도서관 뒤편에서 중앙공원을 잇는 숲길을 걷다가 뻥뻥한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들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만날 때 홀로 큰 감동을 받는다. 숲길 바닥에는 도토리까 밧줄고, 내 부주의한 발 밑에서 밟힌 도토리라는 여지없이 으깨진다.

여름이 끝나자 빛과 그림자의 존재감은 얼어진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발 아래 그림자가 지고, 땅에 단단한 몸통으로서 있는 나무 아래에도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들이 암시하고 일러주는 철학적 진실은 무엇인가? 낙엽이 활엽수의 그림자라면 재는 장작불의 그림자가 아닐까? 그림자란 음의 세계가 빛의 빛의 주검이고 잔류물! 그림자와 실제의 운명은 늘 하나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죽음은 생명이 제 안에 드려온 그림자일 것이다.

가을의 숲길에서

나무들은 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성장한다. 빛이 없다면 나무는 자랄 수 없다. 나무들이 태양의 열기를 차단하는 까닭에 숲속 공기는 바깥보다 시원하다. 숲속에서 공생하는 나무들은 사회화된 존재다. 나무는 수직으로 서고 땅속 뿌리는 복잡하게 엉켜 있다. 나무들은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와 가지는 그것대로 엮이고 얽힌 채로 공생한다. 숨 쉬고 바스락거리며 수런거리리는 나무들. 우리는 나무들이 잎맥과 미립자를 가진, 호흡하고 제 나름의 신경계를 가진 생명 개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자주 잊는다.

따져보면 인류는 숲의 자식들이다. 우리 선조는 숲의 열매와 씨앗, 뿌리를 채취해 식량으로 삼고, 숲에서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했다.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의문의 여지없이 우리 운명의 강력한 원소 중 하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류는 숲의 부양을 통해 제 생명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며 공생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숲의 피부양 가족의 일원이란 점에서 우리는 한 형제인 것이다.

인류학자 팀 잉골드는 '조음'이란 책에서 '인간 몸의 상당 부분은 나무 형상의 공기다. 따라서 이 나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여준다. 뿔어나간 나뭇가지의 구조는 폐, 둥글게 얽힌 뿌리는 입, 우거진 숲지붕의 형태는 숨이다'라고 쓴다. 나무들은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말을 건넌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한다. 나무는 인간을 속속들이 알지만 우리는 나무를

알지 못한다. 인간의 무지몽매함 탓에 제 형제를 베고 제재소에서 몸통을 자르며 쓸모가 덜한 뿌리와 잔가지를 불태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인간은 숲을 토벌하고 빈 땅을 공동 거주지나 경작지로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제 양육자인 어머니 숲을 살해한 사태는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무지로 비롯된 잔혹한 일이다. 인간은 한 점의 죄의식도 없이 지구 자원을 마구 퍼 쓰고, 다른 동물의 피해를 끼치며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펜데믹 초기 엄격한 봉쇄 조치와 이동을 제한하자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대기와 물이 깨끗해지고, 야생동물이 자주 도심에 출몰했다. 인간이 활동을 멈추자 자연 생태계와 동물 서식지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유해종이라는 낙인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 오명을 벗으려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동료 인간에게 더 투터운 이타적 우정을 쌓고, 숲과 우리가 생명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오늘도 고즈넉하고 조용한 숲속 오솔길을 걸으며 디지털 기기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풀려나며 흥겨운 자유를 만끽하며 사색에 몰입한다. 산책하는 내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은 잦아들고 대신 고요와 기쁨이 찾아온다. 고요가 빛은 사색 속에서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된 정체성이 수목 인간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라고, 나는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이다.

社說

추석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 기하기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코앞이다. 힘든 일상에도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수천 만명이 길을 나서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월추석을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명절이다. 무엇보다 나이 드신 부모님,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할머니, 연로한 탓에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을 끼고 생활하는 어른들. 언제 위급한 상황에 처할 지 모르는 가족을 둔 이들은 벌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들도 일제히 추석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가시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위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병원들이 문을 닫는 연휴 기간에는 사고 위험성이 한층 높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당직 병의

원을 확대했으며, 광주시도 응급의료기관 21곳과 응급의료시설 5곳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함은 물론 유아어린이를 위한 공공심아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운영한다.

의정갈등 탓에 절대적으로 진료현장의 의사가 부족함을 시인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는 일반에 없어야 한다. 응급실 대란에 오히려 고소해야하며 진료 의사를 비난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한다. 물론 극히 일부겠지만. 전염병에 다친 적군의 병사까지도 치료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의무이다.

진료현장을 떠나 투쟁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응급실만은 절대적으로 지키려는 의사들의 사고와 자세도 존중해줄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추석이나 기타 명절 연휴에 일하는 병원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수가를 적용해 노고에 답해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 '급할수록 돌아가라'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은 지역 사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12월, 2호기는 2026년 9월에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원전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 연장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차 공청회는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고 2차 공청회는 그제 영광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하지만 폐쇄적인 운영과 형식적인 답변 등으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일방통행식 공청회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이 요청한 전문가를 공청회에 참석시키기로 영광군과 합의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다.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와 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막은 것도 스스로 소통을 차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이다. 환경단체들은 공청회 사회자와 좌장 선정에 있어 주민과 최소한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방사선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웠고 '질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질문권이 묵살당했다는 하소연이 나온 점도 한수원측이 새겨야 한다. 1차 수명 연장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한수원 간부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2차 수명 연장 발언을 한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은 현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원전 수명 연장은 안전성에 대한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수원은 수명 연장에 대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우선일 것이다.

종교칼럼

신앙인의 기쁨을 회복하자



최현열 광주 순교회 담임목사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오펜교회에서 전국의 목회자 오백 명을 초청해 2박 3일 일정으로 목회자 리조이스(Paster's Rejoice in the Oryun)를 진행하였다. 나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많은 목회자들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데 대하여 후기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을 전하기 위해 올라온 준비위원장 장로님의 말씀 속에 그간 수개월의 정성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기뻐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했다. 그리고 끝으로 전한 말이 웃음을 선사했는데 '무엇을 좋아 하실지 몰라 이것저것 다양하게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목회자인 나는 왜 기쁨을 잃어 버렸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힘들어하고 우울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스스로를 어두운 동굴로 파고들지 않았나 싶다. 나는 근복무를 시작한 20대 초반에 군종병으로 군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교역자로 지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어떤 면에서는 호기롭게 담임목회를 시작하였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위암 판정을 받고 전절제 수술을 하여 위 전체를 들어내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홀로 외롭게 개척을 하였다. 위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웠고 개척 후 일 년이 지나는데 동안 코로나 아무도 찾아오지도, 전도는 물론이고 온전한 예배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 점점 우울함은 더해가고 좌절감이 엄습했다.

가끔은 즐겁기도 하고 기쁨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구멍 난 타이어에 바람을 넣었다가 금세 빠져서 꺼져버리는 것이었다.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예배인원이 수십 명으로 늘어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즐겁거나 기쁨이 샘솟지는 않았다.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말씀은 그렇게도 자주 인용하여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해놓고 나 스스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목사지만 신앙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아니었던 것에 스스로 놀랐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라고 노래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이 즐거움이나 기쁨을 표현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룸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분의 기쁨이 우리(내)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기쁨'의 헬라어 '카라'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극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여성명사형 단어다. 다른 이의 생각, 말, 행위 등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줄 때 사용하는 단어다.

금번 목회자 리조이스를 통해 환대와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과 깊은 은혜를 받았다. 그분들의 친절하고 말과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서 기쁨이 다시 샘솟는 듯했다. 순간순간 즐거움의 환호와 박수가 저절로 나왔다. 찬양을 부르며 가슴은 뭉클해졌고 주님의 파스한 품에 안긴 듯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였던 그 기쁨이 가득한데서부터 시작된다. 따뜻한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전신의 긴장이 풀어지고 시원함을 느끼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곳으로 부르는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나와 같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기고

보름달 뜨는 밤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노랑게 탕자 익어가는 추석이다. 호떡 같은 보름달이 부풀어 오를 것이다. 과학자들에게 달은 장대한 우주를 상상하도록 해줬지만, 나에게서는 자부 옛날을 떠올리게 해준다.

버스에 탰다. 아이들은 누가 내리나 흥먼지 속을 주시했다. 그리고 뛰어가 짐들을 받았다. 멋지게 차려입은 형들과 누나 그리고 삼촌들, 그 버스가 서는 순간부터 누구네 집에 누가 왔고, 어떤 선물이 들려있는지 금방 마을을 구석구석 소문이 났다. 어머니 보약도 신형 라디오도 그렇게 추석과 함께 왔다. 들이 운동화도 손이 설빔도 그랬다.

그러면 자식들이 저 먼 미국 땅에서라도 온 듯, 아버지는 닭을 잡고 어머니는 서둘러 떡 집시를 내놓았다. 온 집안은 무슨 잔치라도 하듯 1년 시름을 털어냈고, 마을은 새 세상이라도 된 듯 온통 축제였다. 추석 한가위는 마을 앞 정류장에서 시작했다.

이촌향도의 절정, 민족대이동, 귀향은 치열한 전쟁이었고, 흑백 TV에서는 종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귀향 현장을 보여주며 귀성을 독려하고 미화했다. 고속도로는 밀렸고, 급한 나머지 우산으로 가리고 도로변에서

일을 보는 이도 종종 있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그럭저럭 왔다고 해도 또 광주에서 완도고 신안이고 섬까지 가는 길이 여간 아니었다. 물건이 부서지고 차에 놓고 내리고, 난리가 따로 없었다.

광주에서 사는 나도 일부러 그 귀성 버스를 탰다. 그 혼잡이 오히려 부럽고 좋았다. 버스에 탑승을 사 오다가 그만 닭이 유리창 밖으로 날아가 버려서 한숨짓던 능주 아재도 있고, 애써 팔러 간 수박을 누가 깔고 앉은 바람에 깨졌다고 울고불고하던 보성 아집도 있었다. 장날 풍경과 비슷했다. 하지만 닭이 날아다니거나 강아지가 의자 밑으로 다니는 일은 없었다. 농산물을 사람 반 물건 반인 장날과 달리 추석 귀성 버스는 각종 선물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폭폭 찌는 차안, 사람들은 만원 버스 속에서도 웃음이 넘쳐났다.

그 와중에도 짝사랑한 친구라도 땀을 두리번거리는데, "누구야" 큰소리가 났다. 아마 누군가 아주머니 엉덩이를 잘못 만진 모양이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고 시끄러웠다. 그뻘 좀 그랬다. 요란했다. 신작로를 달리는 차는 마치 파도를 헤치고 가는 배와 같이 출렁거렸고, 달경거릴 때마다 "어이쿠" 하면서도 여기저기 환호성이 터졌던, 되레 흥겨웠던 때였다. 그렇게 이리저리 부대끼며 타인의 심정이 나처럼 뛰고 상대의 숨소리가 나처럼 다시 들리는 것을 즐겼었다. 그게 사랑이었다.

추석은 이름 그대로 가을밤, 저녁달이 떠야 진짜다. 우리 마을 공터에 모여 놀기 바쁜 개구쟁이였다. 우리가 노는 사이, 동네 선배들은 마을 앞 냇가에서 알마

를 뒷마을을 또래들과 검곤 했는데, 훗날 알고 보니 이들은 어느새 각각 부부가 되어 있었다. 보름달 달빛 때문이었을 게다. 장가 못 갈 거라고 애달파했던 종만이도 못생긴 촌놈들도 남자답게 보였고, 까탈스러운 미숙이나, 깔깔을 부리던 촌심에도 보름달 앞에서는 아들이 들해지고 나긋나긋해졌다. 고향은 아니 추석날 보름달은 그냥 허투루 뜨지 않았다. 구석구석 가난한 사람들 마당은 물론, 공장 단련 사람들 밭장도 슬그머니 풀어 주었다. 기묘하게도 쓸쓸한 이들을 잘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였다.

가난한 집에는 누군가 몰래 쌀을 가져다 놓기도 했고, 아픈 이가 있는 집에는 서로 손을 빌려주며 함께 송편을 빚기도 했다. 고상 여기저기서 막걸리와 음식을 권했고, 잔을 비우면 그릇 속에 고봉 가득 새하얀 웃음이 남던 때였다.

대추도 익고 감이 익어가는 것처럼 집마다 사람들 인심도 발갈게 익어가는 추석이었다.

모기 입도 비틀어진다는 처서가 엇그제 지난 것 같은데, 아니 버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는 입추가 이제 같은데, 추석이다. 그때 추석은 보름달이 뿌려놓은 금싸라기를 밟고 왔다가 새벽이슬에 흠시 떨어지듯 갔다. 그사이 사랑도 익고 사람도 익어갔다.

그 보름달 금싸라기 달빛에 모난 이도 뾰족한 이도 달을 닮아 늙해지고 유순해지는 날이다.

해남과 고흥, 영광에서도 달이 뜰 게다. 난 그 노랑고 동그란 달이 그림다. 그때 그날 밤 달은 훈훈한 사랑과 웃음이 가득 찬 만월이었고, 그런 동그레진 마음을 닮은 달이었다.

無等鼓

KIA 타이거즈가 '매직넘버'를 세고 있다. 매직넘버는 우승하는 데 필요한 승수를 말한다. KIA가 승리하면 매직넘버 하나가 줄어든다. 2위 삼성이 패하면 자연스레 숫자가 하나 더 준다. KIA는 5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서건창의 끝내기 안타로 매직넘버를 10으로 만들고 우승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눈앞에 고지가 보이지만 물 시즌을 돌아오면 쉽지 않은 여정이였다.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으로 고전했던 KIA는 올 시즌 월 크로우와 제임스

매직넘버

네일을 영입했다. 여기에 토종 좌완 트리오 양현종·이희원·윤영철로 선발진이 구성됐다. 우승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이들 중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는 양현종이 유일하다. 크로우와 이희원이 팔꿈치 수술을 받아 전반기에 시즌을 마감했다. 2년 차 윤영철은 7월 척추 피로 골절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8월에는 에이스 네일이 경기 도중 타구에 얼굴을 맞아 턱관절 골절상을 입었다.

선발진이 이렇게 동시에 부상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기에 마무리 정해영도 어깨 염증으로 40일 넘게 자리를

비웠다. 역대급 마운드 부상 약재에도 KIA는 1위를 달려왔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게 주요했다. 네일이 24일 부상을 당하자 KIA는 '플랜B'를 가동해 대만리 그에서 활약하는 스타우트를 영입했다. 스타우트는 8월 27일 입국해 9월 1일 첫 경기를 치렀다. 일사천리로 빈틈을 채운 KIA는 네일의 회복에도 주력했다. 덕분에 네일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6일 키움전 '깜짝 시구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발빠르게 움직인 심재학 단장, 이범호 감독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첫 선발진이 구성됐다. 우승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이들 중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는 양현종이 유일하다. 크로우와 이희원이 팔꿈치 수술을 받아 전반기에 시즌을 마감했다. 2년 차 윤영철은 7월 척추 피로 골절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8월에는 에이스 네일이 경기 도중 타구에 얼굴을 맞아 턱관절 골절상을 입었다. 선발진이 이렇게 동시에 부상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기에 마무리 정해영도 어깨 염증으로 40일 넘게 자리를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disclaim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